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익산시, 전북 최초 만0~2세 월 2만원 · 만3~5세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익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게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필요경비는 정부지원 바우처로 지원되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프로그램 등 보육료 이외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부모부담 행사비 등을 부모가 전액 부담해 양육 부담이 컸다.

시는 3월부터 부모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북 최초 자체 사업으로 만 0~2세 영아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한도내에서 전체 필요경비 지원 항목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내 주소지를 둔 유아에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인당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일부) 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익산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학부모의 필요경비 지급 부담이 크게 감소될것으로 보여진다.

지원 방법은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필요경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가 만0~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의 만3~5세 필요경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며 "앞으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헌율 시장 "관광객 사로잡을 앵커시설 만들어야"

간부회의서 관광기획단 구성 등 검토 지시… 산불 발생 대비 시설 점검 · 신속집행 추진 철저 당부도

정헌율 익산시장이 봄철 관광 시즌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앵커시설 육성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2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3월이 되면 봄맞이 관광객이 많아질 시기이다"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시장은 지역에 관광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핵심 앵커시설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한 관광기획단 구성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봄맞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세대별 여행 패턴을 고려한 여행 코스를 개발했으며 관광 붐 조성을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KTX 열차 이용 관광객에게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발생에 대비해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신속 집행 목표를 기간 내에 달성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 시장은 "조그만 불씨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 부서는 주요 등산로에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진화 장비도 점검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미륵사지 메타버스 본격 운영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익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미륵사지 콘텐츠를 구축해 이달 28일까지 시범운영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메타버스 역사문화관광지 선점에 나섰다.

백제 시대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견된 '국보 사리장엄구' 및 다양한 유물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복원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페토 플랫폼 내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월드로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퀘스트를 진행하는 등 공간적 제약 없이 문화유산 경험이 가능해 오프라인에서의 기존 콘텐츠와 다른 매력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에서의 퀘스트 보상, 가상의 미륵삼존 만남과 구름을 타고 미륵사지를 여행하는 등 자유로운 경험 등은 MZ세대에게 문화유산 향유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3월 정식 운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매월 콘텐츠 내 경쟁 이벤트, SNS연계 인증샷,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 체험 후 미륵사지 방문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익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콘텐츠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는 보존 중인 문화유산과 가상현실로 복원된 문화유산의 공존을 통해 익산의 세계유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체험하는 백제왕도 익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미륵사지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2월까지 시범운영해 왔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주 이용객인 초·중·고 학생 및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보고 도출한 실수요자 관점의 피드백을 진행하여 반영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청앞 반찬가게'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엄마 손맛 담은 반찬거리"

익산시, 시장형 노인일자리로 '시청앞 반찬가게' 문열어

익산시는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청앞 반찬가게'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익산시 관계자 및 신옥순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이사장과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오픈한 '시청앞 반찬가게'는 지난해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며, 가게 위치는 교보생명 맞은편 시청 쪽 상가들이 위치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시청앞 반찬가게'가 첫 번째 개장한 가게로 그 의미가 크다.

'시청앞 반찬가게'에서는 주로 밑반찬과 김밥을 판매할 예정으로, 업무로 인해 식사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시청 직원과 인근 회사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을 열기도 전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엄마의 반찬 지원사업과 성당면 지역 밑반찬 사업 계약을 완료했고 동산동, 평화동, 남중동 밑반찬 사업 계약도 추진 중에 있어 많은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재료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공급받아 항상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엄마의 손맛을 담은 반찬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 일까지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7일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가정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4,1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3월 1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3월 1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저소득층으로 신청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를 제출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계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에 도움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허브 본격 조성

익산시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신중년 일자리 허브가 본격 조성된다.

시는 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센터인 '익산 신중년 일자리센터' 조성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4월 개소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익산신중년 일자리센터'는 신중년 일자리와 재도약을 위해 취?창업, 사회공헌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 어양동 센트럴파크 상가 건물을 공유재산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

센터는 회의실, 상담실, 전산교육장,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간 구성으로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정보 제공, 취창업 지원, 커뮤니티 운영, 일자리 매칭, 구인업체 및 구직자 애로사항 수렴 등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군산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3개소를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위생등급(좋음, 우수, 매우우수)을 지정하는 제도다.

컨설팅은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업체가 업소를 방문해 신청 절차·방법 안내·구비서류 검토, 위생등급제 서류 신청 지원, 위생등급 평가표에 따라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제공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군산=이재춘 기자